

## A-7. 염산테트라사이클린으로 처리한 치근면의 치은상피세포부착에 관한 연구

황나영\*, 김병욱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질환이 진행되면서 치주낭의 형성, 결체조직 및 치주인대의 파괴등으로 치조골의 흡수 및 치아 동요등에 의해 치아상실이 나타날수도 있다. 그러므로 치주치료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환된 치근 표면에 신생 결합조직의 부착, 신생 백악질의 형성으로 치조골의 재생을 도모하는 치주조직의 재생에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 인자인 치태, 치석을 제거하는 것 이외에 이환된 치근표면의 성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섬유세포의 부착이 증진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치근표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기계적방법, 화학적방법등이 이용되어지는데,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화학 요법제를 이용하여 치근표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방법등이 많이 소개되어져 왔다.

하지만 임상에서 행해지는 여러 치주외과적 치료시 치주조직 재생의 원래 목표인 치은섬유아세포에 의한 부착이 아닌 긴 접합상피에 의한 치유양상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화학 요법제를 이용하여 치근표면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치근표면에 치은상피세포의 초기 부착양상을 관찰함으로써 테트라사이클린이 치은상피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재료는 치주질환에 이환된 치아를 이용하여 상아질 표본을 만들어 이용하고 건강한 치은조직으로부터 치은상피세포를 채취하여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제작된 치근표면을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어 치근활택술 및 염산테트라사이클린으로 처리하고 표본위에 치은상피세포를 배양하여 1시간, 3시간이 지난뒤 배양접시에 남아있는 세포의 수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치근상피세포의 부착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아질 표본에 치은상피세포의 부착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